

광주의 가을밤 예술로 물들다

27일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공연아트, ACC 하늘마당 전시아트, ACC 플라자 브리지 국악·발레·무용·시화전 등 다채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은 물론 영화, 국악, 건축 및 사진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 축제'가 펼쳐진다. 지역 10개 문화예술단체들이 모여 예술적 성과를 공유하는 '제15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이 그것. 광주예총(회장 임원식)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공연아트 페스티벌'과 '전시아트 페스티벌'로 나눠 각각 오는 27일(오후 7시) ACC 하늘마당, 21~27일 ACC 플라자 브리지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이 27일까지 ACC 플라자 브리지, 하늘마당 일원에서 열린다. 빛고을영무장농악단의 공연 장면. <광주예총 제공>

◇국악, 클래식, 대중가요-음악의 '향연'

광주국악협회(회장 함태선)는 두 편 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문화예술 이음의 '서한유류 버꾸춤'은 전남 완도의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를 서한유 명인이 무대화한 것이다. 빛고을영무장농악단 난설의 연주 및 퍼포먼스는 진도 씨김살풀이 장단에 대북과 모듬북 합주, 무용수의 몸짓을 섞어 천지신명·인간 존재 의미를 모색한다.

광주음악협회(회장 이정은)는 광주전남종합예술인협회 소속 여섯 명 예술인들의 성악 공연을 마련했다. 이들은 '오 솔레미오'를 시작으로 '푸니쿨리 푸니쿨라', '첼피온들' 등을 부른다.

이어 아트플래닛 재즈밴드가 들려주는 아바 '댄싱퀸' 등 재즈 레퍼토리와 색소폰, 드럼 등을 활용한 크로스오버 음악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호신대 교수인 박수용을 필두로 퓨전국악 화양연화 리더인 강윤숙, 호신대 음악학과 출신 전사무래, 운영훈이 출연할 예정이다.

광주연예협회(회장 유방희)는 대중가수 진이랑의 '사랑 아리랑'을 비롯해 '저 꽃속에 전란한 빛이' 등을 부른다. 또 제15회 한국인기연예대상(전통가요부문 신인가수상)을 받은 가수 진국은 '진짜 멋쟁이', '미워도 다시 한번'을, 전남민속예술학원장을 역임한 오목대는 '신이별곡', '전년바위' 등을 선사한다.

◇무대 위 펼쳐지는 극예술의 멋과 감동

광주연극협회(회장 고난영)는 극단 좋은친구의 '평상위에 할머니들'을 선보인다. 할머니들의 무용담과 구수한 맛을 살린 가무악극이며 광주연극제에서 신인연기상 등을 수상한 단원들이 총출동한다. 꿈을 좇는 것조차 사치였던 세 명 할머니들은 평상에 앉아 어릴 적 간직했던 진짜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양정인, 정정아 및 정일행 등이 출연.

지역의 번사극 무성영화 '이수일과 심순애'는 광주영화인협회(회장 차두옥)가 준비했다. 최영준의 신파 연기와 노래, 현대적 연출기법이 해학적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작품이다.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로 알려진 최영준은 '관객 모독', '리어왕' 등에 출연했다.

광주무용협회(회장 나인숙)는 광주로얄발레단 '다 실피드'를 무대화한다. 결혼식을 앞둔 청년 제임스가 공기의 요정 실피드에 매혹되며 벌어진 비극에 초점을 맞춘다. 제3회 세계무용연맹 전국무용콩쿠르 안무자상을 수상한 문서민 무용단도 '시월, 베르니케'로 화려한 몸짓을 뽐낸다. 인간의

'베르니케 영역'을 소재 삼아 인지와 사고, 말을 잃어가는 인간을 형상화한다.

◇건축부터 문학, 미술과 사진까지 풍성한 '전시아트 페스티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이순미)는 건축가의 설계 의도와 숨겨진 건축과정을 듣고 토론하는 역동적인 일상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2년간 매월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왔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12명의 건축가들을 통해 '지역건축'의 현주소를 돌아본다.

광주미술협회(회장 박광구)는 신경자 작가 외 23명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선보인다. 서양 화부터 한국화, 수채화, 서예, 문인화 및 전통미술과 공예,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매개로 예술의 다원성과 동시대성을 탐구한다.

광주사진협회(회장 윤판문) 또한 참여 작가 24명의 사진예술 작품을 통해 현대 사진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광주문인협회(회장 이근모)도 문수봉 외 47명 회원들의 시화전을 개최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대학 교양과목 된 'ACC 직군탐색 과정'

2년연속 전남대 교과목 선정...수강신청 두배 늘어



'ACC 직군탐색 과정' 강의 장면. <ACC 제공>

'오디오북 내레이터', '아트아키비스트', '융·복합 문화 기획자', '문화유산 교육사', '공연 미디어 전문가'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개설한 'ACC 직군탐색 과정'이 2년 연속 전남대 교과목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1, 2학기에 이어 올해 1, 2학기까지 4학기째 개설된데다 이번 학기에는 수강신청 인원이 직전 학기보다 두 배 증가했다.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직업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강은 오는 11월 26일까지 펼쳐진다.

문화예술분야 직업세계 이해(김중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를 시작으로 '오디오북 내레이터'(이한솔 오렌지 커뮤니케이션 차장), '아트아키비스트'(이지은 아키비스트), '융·복합 문화 기획자'(권태현 독립 큐레이터), '문화유산 교육사'(박지

영 문화더하기 연구소 대표), '공연 미디어 전문가'(김준섭 KartsEDU 이사) 순으로 진행된다.

ACC는 문화예술 현장의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 지원, 실무를 돕기 위해 'ACC 직군탐색 과정'을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개발했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은 산학협력과정으로 'ACC 직군탐색 과정'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해 강의 개설로 이어졌다.

전남대 박지현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창의적인 융복합 문화예술의 실무와 교육이 진행되는 ACC에서 대학생들이 직군탐색 과정으로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직군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라며 "학생들이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 등을 통해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표해록' 저자 최부 선생의 삶과 사상

기념사업회, 다음달 2일 나주시민회관서 학술대회

조선 전기 흥문관교리 등을 역임한 나주 출신 문신 최부는 '표해록'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1487년(성종 18) 제주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부임했지만 이듬해 부친상을 당했다. 그는 육지로 나오다 폭풍을 만나 중국 저장 성에 닿았고, 이후 귀국해 당시 경험을 책으로 남겼다. 여타 중국기행기보다 흥미로우며 일본에까지 전해질 만큼 유명하다.

최부선생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최부기념사업회(이사장 탁인석)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1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최부선생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연다.

1부는 현행복 한학자가 '최부 탐라시 35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종 시인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는 기세규 박사 '최부 유학사상'을 발표하고 이흥수 전남대 명예교수가 토론을 한다. 3부는 김성후 동신대 교수가 '표해록'을 통한 나주 관광 방안'을 발표하며 지형원 문화통 발행인이 토론자로 나선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최부 행적 투어가 있을 예정이다. 탄생지 나주동강에서 느리자 최부의 길, 묘



최부선생 표해록 목판인쇄본. <나주시청 홈페이지>

소(무안 동탄), 무양서원(광주 월계동)까지 진행된다.

한편 탁인석 최부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나주 출신 최부선생은 당시 중국 풍속과 지역의 역사적 사실 등을 기술해 '표해록'에 남겼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부선생의 삶과 사상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쓰레기 없는 지역 축제'를 꿈꿔요

광주여성가족재단, 26일 젠더포럼...문화기획자 초청 강연

제로웨이스트 홍보 부스 운영, 마을축제기획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매개로 '쓰레기 없는 지역 축제'를 꿈꿔요.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김경례-재단) 젠더포럼 기후정의분과(분과장 유난이-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기술연구소)가 하반기 예정된 지역축제에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젠더포럼은 지역 여성계 네트워크와 현장형 성평등 정책 개발을 위해 기후

정의분과 등 총 6개 분과가 활동 중인 재단 협력기구다.

활동 일환으로 오는 26일 '불모지장을 통해 배우다'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전주에서 불모지장(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장)을 선보인 문화기획자 시리를 초청, 제로웨이스트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오전 10시 재단 1층 북카페에서)

오는 10월에는 '광주버스킹 월드컵'(광주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진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없는 축제 교육, 제로웨이스트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버스킹 행사 기간인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며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 권장, 해외 참여자를 위한 가방 만들기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유난이 분과장은 "광주 전역에서 쓰레기 없는 행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순환실용실한 걸음가게,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드레스팩토리협동조합 등과 관련 회의를 진행해 왔다"며 "올해 행사 결과 및 교육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토대로 향후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정책적 제안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